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교우 동정]

1. 소천 - 2교구故 이순단 집사(비래2-4목장) / 10일(토)
- 3교구 임현성 장로(남3-1)모친, 유정화a 권사(판암)시모 / 12일(월)
2. 결혼 - 3교구 박민수 집사(남3-1), 박정숙 집사(가양3-4) 차남 동현 형제
24일(토) 오후3시 / BMK웨딩홀 5층 하모니홀
- 최영현 형제(청년), 김다솜 자매(청년) 24일(토) 오후 5시
라도무스아트센터 1층 아시시홀

[담임목사 동정]

1. 금번 동대전제일노회 제138회 정기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조정옥 전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송경호
부목사	고윤철	오상옥	김종명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김수중	임인성
전도사	김명순	조정옥	전상순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김민준(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응	최영일	윤재룡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정기조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술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1. 4. 18 (NO. 63-16)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일예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성도여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안장현 집사(1부) / 황덕순 장로(2부) / 임현성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시 16:1-11
설교	시편의 묵상(16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복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419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 성경읽기예배 오후 4:00 (본당)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김다민 자매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출 4:10-17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 찬양: 주찬양 찬양단 * 기도: 윤상덕 집사 * 설교: 고윤설 목사 * 성경: 행 25-28장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기도: 송정숙 집사(1부) 이은희 집사(2부)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창 5:21-24 “새로운 표준”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 담당 교역자 -	* 찬양: 아이노스 찬양단 *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윤상덕 집사	안내위원		
	2 부	임현성 장로		식당봉사	금 주
	3 부	김수중 장로			내 주
주일새벽	금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이길천 이종규 우희정 임춘수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안성현 집사	차량운행	2호/ 이본규 집사 010-8281-3779	
수요일예배	1 부	양길용 집사		3호/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2 부	이용정 집사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목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오후 2:00	매 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부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19일)	최정숙 고한례 최영희 장영애
화 (20일)	송정숙
수 (21일)	공종호
목 (22일)	고윤설 전상순
금 (23일)	김종명 김명순
토 (24일)	이종욱 유창웅 김정식 송순례
주일 (25일)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이연옥 집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자녀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18일(주일)	19일(월)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4일(토)
성경	막15-눅1	눅2-4	눅5-7	눅8-10	눅11-13	눅14-16	눅17-19

♠ 개업

- * 3교구 권소열 장로(남3-2), 김순이 권사(현대)
- 독도해물알찜(용운동) / 배달전문 T. 282-0059, 010-4404-3891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 · 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 자 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 역 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 숙 한 성 도 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 도 헌 신 자 훈 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4월 행사 안내

* 29일(월)~4월3일(토) / 고난주간

* 4일(주일) / 부활주일

* 12일(월)~13일(화) / 동대전제일노회 정기회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

1. 주일 2,3,4부(청년)예배는 좌석 20%이내 대면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2. 새벽예배, 주일1부, 주일오후, 수요일예배, 목요일영성기도회는 좌석 20%이내 대면으로만 드립니다.
3. 주일학교는 18일(주일)까지 비대면(온라인)예배로만 드립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두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경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율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
- 군선교연합회
- 주바라기선교회
- 대전기독교방송
- 대전극동방송
- 대전CTS방송
- 기독교타임즈
- 총신대학교
- 대전신학교
- 동대전중학교
- 가양중학교
- 명석고등학교
- 내륙흥 노인회
- 가양2동 노인회
- 신도 노인회
- 더퍼리 노인회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시편의 묵상(15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시15:1-5)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앞세운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결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이웃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한국교회가 당면한 믿음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다.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시인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1. 행위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 정직은 바르게 흠이 없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또한 공의는 의롭게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진실은 거짓 없이 참되게 행하는 것이다. 사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다. 내 안에 이런 성품을 구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된 마음을 보셨던 것이다.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다.

2. 언어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3-4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 하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남을 해코지 하는 혀로 태어난 척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약3:9-10). 4절 마지막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언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치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과 약속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다.

3. 물질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곤경에 처한 이웃으로부터 이자를 쥐어짜내면서, 자신은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한다. 뇌물을 받으면 거짓증언을 하거나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된다. 성경은 부당한 물질을 거절하여 매사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바르게 진실만을 증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물질은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눅16:9).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참된 신앙인이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3일(금)	찬 382장 대상 14:1-17	성경읽기 눅 14-16장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얻는 승리
--------	----------------------	------------------	-----------------------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시키려고 다윗의 궁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일꾼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또한 다윗에게 많은 자손을 주셔서 그 왕조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블레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다윗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정면으로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 매복을 해서 기습할 것인지, 어디에 매복했다가 언제 나가 싸울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맞선 것은 다윗이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4일(토)	찬 200장 눅 4:1-13	성경읽기 눅 17-19장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
--------	--------------------	------------------	-------------

마귀는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육신이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다른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기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며 시험을 이겨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함을 신명이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 낼 수 없는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만이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5일(주일)	찬 364장 엡 6:18-24	성경읽기 눅 20-22장	공동체의 기도를 통한 승리
---------	---------------------	------------------	----------------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자신을 ‘죄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세계 각국 사신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로서 로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은 결코 죄사슬에 묶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갇혀서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편지를 통해 곳곳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몸은 죄사슬에 매였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죄사슬에 매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죄사슬에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숙녀 강주연(김재열) 고윤설(박혜란) 구왕성 권소열(김순이) 김복실 김연수
김영자d 김은현(이인옥) 김정순a 김정술(최화단) 김종명 김주원(조수희) 남분자
도경애(최민규) 박노태(최영란a) 박상엽 박은희 박충순 송영신 심윤중 안장현 오명숙
오향순 윤동근(신영순) 이관희 이상경 이서경 이정아 이종대(박정임,이현진) 이종덕
임정재(길선례) 임춘화(한민수) 전상순(정구영) 정명자 정수진 조관희
조규연(서정순b) 조상용(김혜경) 최영란b(김영서) 하용호(문희정) 한순옥(길광내)
현성주 황인숙

감사헌금

강병욱(김정애) 강숙녀 김동윤(이연옥) 김복실 김성렬(장영희) 김수종(김영자b)
김신(맹경연) 김영천(남정혜) 김윤정b 김정구 김정례 김태순 김혜울 노광호
박제순(오승희) 유춘성 이여진 이춘권(김연자) 정기조(이종옥) 정순애
조정옥(노정남,노소담) 최국현(이영숙c) 최진수 하용호(문희정)
(주정화(박종권,주정화) 총만치킨(안중근,국은희,안종경) 무명2

선교헌금

고윤설(박혜란) 구은정 권소열 김경덕(이수진a) 김다빈 김민서 김복실 김서연
김성화(이정희c) 김영미 김영자d 김은현(이인옥) 김인숙 김정순a 김정술
김종명(이은진) 김주원(조수희) 김형민(윤혜성,김정인) 남분자 박노태(최영란a)
박민지 박상규 박충순(오명숙) 배정만(강숙녀) 심재성(박진화,심유진,심윤보) 안장현
안철호 오승희 오향순 유인자 윤동근(신영순) 이기철a(김삼순) 이남운(한도희)
이덕성(유희숙) 이상경 이서경 이인옥 이정아 이종대(박정임,이현진) 임예원
임정재(길선례) 임하람 장영수(정순애) 전상순(정구영) 전옥순 정기조(이종옥) 정영자
조상용(김혜경,조성환,조은혜) 최민규(도경애) 최진수(서정순a) 최현순 최화단
하용호(문희정,하진성,하진우,하진영) 한순옥 황덕순(김기환) 3여전도회 6남전도회

부활감사헌금

권남숙 김삼순 김주원(조수희) 심재성(박진화) 윤정순 정구훈(김순옥b) 무명

교회사랑천사헌금 김은현 이인옥

영상헌금 김문수(이효정) 김영천(남정혜) 나승문(남한순)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9일(월)	찬 359장 롬 8:31-39	성경읽기 눅 2-4장	넉넉히 이기는 승리
--------	---------------------	----------------	------------

오늘 본문을 ‘우리’라는 주어가 사용된 구절과 ‘누가’라는 주어가 사용된 구절을 구별해 읽어 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해석됩니다. ‘누가’라는 주어가 사용된 구절들은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끊으리요?’ 등으로 반문하며 그 어떤 것도 그 의도대로 할 수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결코 그 ‘누구’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사를 주시는 것에 할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에 우리는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20일(화)	찬 350장 롬 12:14-21	성경읽기 눅 5-7장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
--------	----------------------	----------------	---------------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서도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나와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마저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통해 능히 악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1일(수)	찬 301장 신 3:1-11	성경읽기 눅 8-10장	과거를 통해 얻는 오늘의 승리
--------	--------------------	-----------------	------------------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왕 시혼을 상대로 승리한 후, 길르앗까지 정복하고 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산왕 옥은 거인 족속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헤스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지역의 60개 성읍을 포함해 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질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높은 성벽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룹니다. 끊임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22일(목)	찬 354장 신 20:1-9	성경읽기 눅 11-13장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승리
--------	--------------------	------------------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군과의 싸움에 임할 때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적군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군사,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에, 제사장은 백성의 두려움을 없애고 사기를 고취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군대를 지휘하는 책임자들은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병력에 대한 이 같은 배려는 전쟁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지체들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면서 동시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배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비례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